류현진, 내일 켈리와 'KBO 출신 맞대결'

애리조나 원정 경기 선발 등판

1점대 평균자책점 재진입 노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LA 다저스)이 메릴 켈리(31·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KBO리그 출신 선발 맞대결을 펼친다.

류현진은 30일 오전 10시40분(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체이스 필드에서 열리는 2019 메이저리그 애리조나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MLB.com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30일 경기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로 켈리를 예상했다. 지난 12일 경기에서 성사 직전까지 갔다 무산됐던 류현진과 켈리의 맞대결이 이번에는 펼쳐질 수 있을 전망이다.

류현진이 선발 등판한 지난 12일 경기를 앞두고는 MLB.com이 애리조나의 선발로 켈리를 예고했다가 이내 마이크 리크로 변경해 혼선을 낳았다.

결국 류현진은 리크와 맞대결, 7이닝 5피안타 1볼넷 1사구 4탈삼진 무실점 호투로 시즌 12승과 함께 한미통산 150승을 달성했다. 리크는 5이닝 8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했다.

다저스 선발진 재조정으로 류현진과 켈리의 맞대결 성사 가능성이 생겼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더스틴 메이를 지난 27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 임시 선발로 투입하면서 기존 선발투수들에게 하루 씩 더 휴식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류현진은 지난 24일 뉴욕 양키스전(4⅓이닝 9피안타 3피홈런 7실점) 이후 닷새를 쉬고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1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5⅔이닝 6피안타 2피홈런 4실점)에 이어 2경기 연속 부진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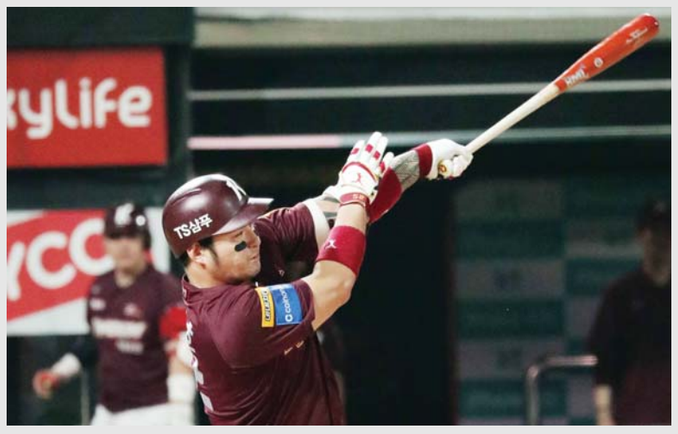
지난 양키스전에서 평균자책점이 1.64에서 2.00으로 치솟은 상황. 류현진이 다시 평균자책점을 1점대로 끌어내리기위해서는 무실점투를 펼치거나 5⅓이닝 이상을 1자책점 이내로 막아야 한다.

애리조나는 류현진에게 반가운 상대다. 올 시즌 애리조나를 3차례 만나 3승 무패 평균자책점 0.45로 매우 강한 면모를 보였다. 통산 애리조나전 성적 또한 6승3패 평균자책점 3.04로 나쁘지 않다.

'KBO리그 출신' 선발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은다. 류현진은 2006년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혜성처럼 등장했던 선수다. 첫 시즌부터 눈부신 활약으로 신인왕과 MVP를 석권했고, 2013년 다저스로 팀을 옮기기 전까지 7시즌 동안 98승52패 평균자책점 2.80을 기록했다.

켈리는 SK 와이번스가 육성형으로 영입했던 외국인 투수였다. 2015년 처음 KBO리그를 경험했고 이후 2018년까지 4시즌 동안 활약했다. 통산 성적은 48승32패 평균자책점 3.86. 류현진과 같은 시기에 KBO리그에서 뛴 적은 없다.

켈리도 승리가 절실하다. 올 시즌 애리조나의 5선발 자리를 꿰차고 9승 13패 평균자책점 4.86으로 제 몫을 해내고 있지만 7월부터 부진이 길어지며 2승에 그치고 있다.



박병호, '한 경기 4홈런' 폭발

개인 2호이자 역대 6호 대기록

청주로 간 박병호(키움)의 방망이가 불타올랐다. 홈런 4방을 몰아치는 등 의미있는 기록을 대거 작성했다.

박병호는 27일 청주구장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한화 이글스와 시즌 14차전에 4번 1루수로 선발출전했다.

이날 1회초, 3회초, 5회초에 3연타석 투런 홈런을 때린 박병호는 8회초에는 볼넷을 얻어 한 템포 쉬어가더니 9회초, 다시 한 번 솔로 홈런을 날리며 '한 경기 4홈런'을 완성했다.

한화 선발투수 송창현을 상대로 3개의 홈런을 날린 박병호는 9회초에는 이충호에게 홈런을 뽑아냈다.

이날 경기 전까지 24홈런을 기록 중이던 박병호는 홈런 4개(28개)를 추가하며 최정(SK·24개)과 팀 동료 제리 샌즈(26개)를 제치고 단숨에 이 부문 단독선두로 뛰어올랐다.

또한 개인통산 2번째이자 리그 통산 6번째 한 경기 4홈런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다.

박병호는 지난 2014년 9월4일 목동 NC전에서 개인 첫 한 경기 4홈런을 기록한 바 있다.

앞서 박경완(현대), 이승엽(삼성), 최정(SK), 로사리오(한화)가 한 경기에 홈런 4개를 때린 적이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18년 5월23일 문학 넥센전에서 한동민(SK)이 한 경기 4홈런으로 장타력을 과시했다.

이날 경기 박병호는 4타수 4안타(4홈런) 1볼넷 7타점 5득점을 기록했다. 한 경기 4홈런과 함께 한 경기 최다루타(16루타)도 타이기록도 세웠다.

그뿐만 아니라 KBO리그 역대 33번째 800타점, 12번째 6년 연속 200루타 돌파에도 성공했다.

손흥민 파트너는 누구?…황의조·김신욱 서로 다른 장점 선보인다

"9월10일 경기에서도 투톱을 쓸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다만 손흥민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드리기 이르다. 많은 것을 지켜보고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한다. 벤투 감독은 아시아 국가들을 상대할 공격 전술로 '투톱'을 꼽았다.

벤투 감독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9월 A매치 2연전(조지아, 투르크메니스탄)에 나설 26명의 태극전사를 발표했다.

벤투 감독은 통상 2명의 공격수를 선발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3명으로 공격진을 꾸렸다.

벤투 감독은 지난 3월(볼리비아, 콜롬비아)과 6월(호주, 이란전) 열린 친선경기에서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세우는 이른바 '손톱' 전략을 연이어 선보였다.

이들 경기에서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 좌우를 가리지 않는 활발한 움직임을 선보였다. 파트너만 달라졌을 뿐이다.

황희찬, 이정협, 황의조, 지동원 등이 그의 파트너였다. 이번에도 부상으로 명단에서 제외된 지동원을 빼고 모두 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의 호흡을 다시 한 번 실험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확실한 조합은 손흥민-황의조 조합이다. 황의조가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펼치며 공을 소유하면, 손흥민은 자신이 좋아하는 공간이 더 많아지게 된다.

황의조는 6월 이란전 뒤 손흥민과의 투톱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상대 수비들이 워낙 흥민이에게 쏠린다. 그 공간을 내가 파고들면 찬스가 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긴다.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 함께 투톱을 서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

포스트플레이라면 김신욱도 빠질 수 없다. 최근 중국 슈퍼리그로 이적한 뒤 7경기 8골 4도움이라는 경이로운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다.

여기에 최전방에서 공을 지킨 뒤 동료 공격수들에게 공을 내주는 패스도 발군이다.

특히 지난 19일 열린 중국 FA컵 4강전에서는 센스있는 플레이로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결승행에 일조하기도 했다.

특히 아시아 무대에서의 김신욱은 검증이 된 선수다. H조 1번 포트를 받은 한국으로선, 상대의 이른바 '밀집 수비'를 뚫어내기 위해 붙박이 황의조, 손흥민과는 다른 타깃형 스트라이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신욱+황의조, 김신욱+황희찬, 김신욱+이정협 등 다양한 조합도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이번에 생애 첫 성인대표팀 태극마크를 달게 된 '미들라이커'(미드필더와 스트라이커의 합성어)' 이동경과 벤투 감독의 부름을 계속 받고 있는 나상호도 언제든지 스트라이커로 활약할 수 있는 자원이다.

전국 규모 육상 경보 경기대회

오는 31일 나주 스포츠파크서

나주시는 오는 31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종합운동장 경보공인코스에서 '2019 전국 육상 경보 경기대회'를 개최한다.

대한육상연맹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2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경보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한국 남자 경보 간판 김현섭 선수도 참가할 예정이다.

경보는 도로나 트랙에서 하는 도보 경기로, 정확한 걸음으로 누가 얼마나 빨리 걷는지를 겨루는 육상 스포츠다.

한쪽 발이 땅에서 떨어지기 전에 다른 발이 땅에 닿아야 하며, 양발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지는 등 경기 규칙에 어긋난다고 심판이 판단할 경우 경고가 주어지며, 세 번째 경고부터는 실격시킬 수 있다.

나주시는 이번 대회를 전후로 숙박과 음식, 목욕탕 업소 등의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 친절한 서비스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참가 선수들의 최적의 컨디션을 도모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선수들이 땀 흘려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대회 제반 사항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